https://doi.org/10.32759/JEBTC.20.1

고승 연구와 불교 구술사

김광식*

목 차

Ⅰ. 서언
Ⅱ. 현대 고승의 증언집 발간
1. 청담 2. 한암 3. 동산 4. 석암
5. 희찬 6. 보문 7. 탄허 8. 벽안
9. 자운 10. 관응 11. 경봉 12. 춘성, 동헌
Ⅲ. 결어

요 약

본 고찰은 한국 근현대 고승과 구술 인터뷰와의 상관성을 정리한 글이다. 이 글은 학술적인 논고라기보다는 이 분야를 기획하고,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원고를 만들어서 출간한 당사자인 필자가 그 관련 내용을 회고한 글이다. 추후 이 분야에서 인터뷰, 녹취, 편집, 출간 작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남긴 글이다.

이런 전제하에 필자가 유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려고 하였다. 이는 추후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 것에서 나왔다. 둘째, 구술사 연구를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기록성에 유의하였다. 불교계에서의 구술사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 연구, 성찰 작업은 미진하다. 때문에 이런 분야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연구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자료적 성격을 고려하였다. 셋째, 고승연구에서의 구술 인터뷰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고찰이 불교 구술사, 고승연구, 근현대 불교 영역의 확장 등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불교 구술사, 고승, 증언, 큰스님

Ⅰ. 서 언

근현대 고승에 대한 연구는 최근 3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1] 여기에는 근현대 불교의 연구 기반이 고양되었던 현실이 개재되어 있었다.[2] 그리고 현재도 가장 왕성한 연구, 출간,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기왕의 고승연구의 흐름은 문헌에 의한 생애와 사상을 탐구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래서 연구의 기본 자료인 해당 인물에 대한 자료집인 『법어집』, 『문집』이 광범위하게 출간되었다.[3] 그렇지만 고승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기하려면 당시 불교사, 일반사에 대한 이해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당시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집대성이 부족하여[4] 고승연구는 적지 않은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고승, 불교사 연구의 자료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口述史의 도입이었다. 즉 관련 인물, 사건, 불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듣고 겪은 당사자들과의 증언 인터뷰를 하고, 그 녹취록을 정리하고 출간하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불교계 외부에서는 구술사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불교계에서의 구술사 작업은

---

1) 김광식, 『우리 시대의 큰스님』, 인북스, 2015.

2) 김광식, 「근현대 불교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2013.
_____, 「근현대불교사 연구 50년의 성과와 전망」, 『불교평론』 61, 2015.

3) 일제하 불교에서는 『용성선사 어록』(1941), 『경허집』(1943) 간행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후 1967년에 동산의 사진 화보집인 『석영첩』(범어사, 동산문도회)이 간행된 이후 고승들의 문집 발간이 속출하였다.

4) 30년 전에는 자료집이 희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료집 발간이 속출하여, 자료의 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필자는 이철교, 윤창화와 힘을 합하여 『근현대 불교자료전집』(전70권, 민족사)이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자료에 대한 제반 사정은 위의 졸고, 「근현대 불교 연구성과와 과제」, pp.538~542 내용 참조.

매우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단체 및 연구자에 의해서 시도되어 적지 않은 업적이 축적되었다. 그런 작업에 참여한 대상은 선우도량,[5] 김광식, 불학연구소,[6] 최동순,[7] 불광연구원[8] 등이었다.

---

5)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필자는 선우도량의 인터뷰 작업에 1998년과 2000년에 3회(조용명, 혜관스님, 연종스님) 참여하였다.

6) 조계종 교육원의 불학연구소는 2004년에 '조계종 강맥 전등사' 관련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여섯 명(지관스님, 인환스님, 월운스님, 김지복 거사, 현성주 거사, 고산스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지만, 녹취록을 가제본으로 제작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필자는 이 사업의 인터뷰 채록자이었는데, 연구소 직원(최은미)와 함께 현장 취재를 하였다. 그러나 이때 채록한 원고 중에서 지관스님, 인환스님의 원고를 정리하여 『승가교육』 6집, 2006, pp.353~440에 「인터뷰 ; 회고, 수행의 현장과 역사」라는 주제로 수록하였다.

불학연구소는 2006년에도 구술사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그 대상자는 6명(혜해스님, 경희스님, 범행스님, 원명스님, 법인스님, 이건호)이었는데, 인터뷰 진행자는 김광식이었다. 그 당시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인 명연스님(대구, 서봉사)도 일부의 인터뷰 탐방에 동참하였다. 연구소는 이 녹취록을 가제본하여 보관하고 있다. 불학연구소는 2007년도에는 봉암사 결사 현장에 있었던 고승(혜명스님, 묘엄스님)과 결사 이야기를 성철스님으로 전해들은 천제스님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하여 『승가교육』 7집, 2008, pp.339~387에 「인터뷰 ; 내가 보고 들은 봉암사 결사」(혜명, 묘엄)라는 주제로 수록하였다. 이 인터뷰 진행자도 필자이었고, 송현주(순천향대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가 봉암사 결사의 의례연구를 하였던 연고로 동행하였다.

7)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9년부터 주관한 '현대 한국 구술사 자료관'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사업 주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종교인의 구술자료 수집과 연구'이었다. 그는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 한신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학사학철학』 22집(2010)에 최동순이 기고한 「현대 한국불교사와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 여익구를 통해 본 불교운동」의 글이 참고된다.

최근에는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원로의원)의 생애를 인터뷰 하여 성과물을 내었다. 인환스님의 생애를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7회의 구술 녹취작업을 하였다. 이후 그 녹취록을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과 함께 윤문·편집하였는데, 그 성과물이 『나의 발심수행장』(2권, 도서출판 문현)으로 2017년에 발간되었다.

8) 『불광』을 창간하고, 불광사를 세워 포교에 진력한 광덕스님의 불광운동 구술사 녹취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불광운동의 역사, 문화를 인터뷰하여 '불광운동 구술사'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불교계에서의 구술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무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불교계에서 추진, 생성, 출간되었던 성과물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 이해는 황무지와 같은 실정이다.[9]

그래서 지난 20년간 필자가 담당한 구술사 작업의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해당 작업을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 정리하고, 그 작업을 하게 된 배경 및 과정 등을 회고식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이런 회고와 정리는 불교 구술사 연구의 기초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소신에서 나왔다. 이 글이 불교계 내외의 구술사 연구 및 실무에 참여하는 후학, 동학들의 연구 소재에 활용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Ⅱ. 현대 고승의 증언집 발간

1. 청담 : 『아! 청담』(화남, 2004)

청담은 한국 현대불교의 고승이다. 특히 그는 불교정화운동의 화신으로 지칭될 정도로 조계종단 재건의 기틀을 제공한 불교정화운동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한 고승이다. 그는 또한 불교정화운동이 일단락이 된 후에는 종정, 총무원장, 장로원장을 역임한 큰스님이었다.

이와 같은 청담의 정체성, 위상 등을 이해하고 있었던 필자는 한국현대불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탐구를 위해 청담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동산, 청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등이 부

---

9) 김광식,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 : 근현대 불교의 공백을 메우자」, 『불교평론』 15, 2003, 경순, 「근현대 불교 구술사 성과의 현황과 과제」,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8.

재하였다. 그러다가 필자가 1999년 2월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사직하고, 불교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청담에 대한 구술 증언 작업을 검토하였다. 그 무렵 불교계 외부에서는 구술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과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었다. 필자는 불교계는 자료 보관이 부족하였기에, 더욱 더 구술사 작업이 긴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재직시에는 현장 인터뷰를 할 여유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궁리하였다. 즉, 독립기념관을 나와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술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 궁리를 하였던 시점은 2000년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청담의 연고가 많았고, 청담문도들의 거점 사찰인 도선사가 경영하였던 『여성불교』의 편집장 박선영을 만나 제안을 하였다. 즉 그는 3년 후가 되면 청담 탄신의 100년이 되니, 그 기념 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청담에 대한 구술 증언을 채록하고, 그를 3년간 『여성불교』에 연재하자는 것이었다. 필자와 『여성불교』가 공동으로 증언자를 정하고, 인터뷰는 필자가 해서, 25매 분량의 원고를 필자가 작성하여 연재하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이 같은 제안에 『여성불교』 실무자는 찬성을 하고, 그 기획을 『여성불교』 발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담문화재단 이사장(동광스님)의 동의를 얻었다. 그 당시 전후사정은 아래의 필자 글이 참고된다.

> 본 저술은 필자가 청담스님 입적 100주년을 기해, 스님의 인연이 스며있는 도선사에서 발행하는 「여성불교」에 3년간(2001~2003) 연재한 「청담큰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의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청담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청담스님과 다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스님, 재가불자, 일반대중들과의 면담을 갖고 그 요지를 「여성불교」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연재를 시도한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불교를 이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청담스님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청담스님을 문헌으로만 접하고, 연구한 필자가 청담스님의 진면목과 참정신을 파악하려는 잠재의식도 개재되었다. 또한 불교계 외부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정착,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를 불교사에도 접목시키려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음을 고백한다.[10]

이처럼 청담에 대한 인터뷰는 청담의 이해 및 구술사의 불교계에 접목이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다. 그래서 매달 1명의 인터뷰 대상을 정하고, 그 인물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인터뷰를 하고, 원고를 작성하여 기고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현장 인터뷰는 필자와 『여성불교』 담당 기자(정미)와 함께 나갔고, 진행은 필자가 담당하였다. 인터뷰 요지를 사전에 보낸 경우는 드물었다.[11] 사진촬영과 녹음은 정미 기자가 담당하였다. 기자가 녹취본을 필자에게 제공하면, 필자는 그것을 보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매월, 소정의 원고료를[12] 받았다.

인터뷰는 스님, 재가자, 전문가 등을 취합하여 적당한 인물이 정해지면, 인터뷰를 요청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 순서는 특별한 것이 없이 진행하였다. 그런데 간혹 인터뷰를 응해서 찾아갔지만, 출타하여 허탕을 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3년을 진행하여 총 36명을 인터뷰 하였던 것이다. 그 대상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님 : 광우, 능혜, 도우, 동광, 범행, 법산, 법홍, 설산, 원두, 월운, 월주, 인환, 정천, 지하, 천제, 현성, 혜명, 혜성, 혜자

사회인 : 강원룡, 김기원, 김선근, 김해근, 박경훈, 박완일, 송만덕화 석지현, 심재열, 오형근, 우경배, 윤청광, 이건호, 이승택 이용부, 조종래, 최준섭

이렇게 스님 19명, 사회인[13] 17명을 인터뷰 하였다. 필자는 구술 인터

---

10)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pp.7~8.
11) 그러나 월주스님, 강원룡의 경우는 사전에 인터뷰 요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된다.
12) 원고료는 30만원으로 기억한다.
13) 출간 직후, 사회인에 포함시킨 석지현으로부터 이의가 있었다. 자신은 '비승비속

뷰를 진행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경험이 희박하여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우선 원고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의 인터뷰 대상자를 정하고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30일이라는 기간에서 원고를 제출하고 나면 불과 10일 이내에 후속 인터뷰를 해야만 되었다. 그 강박관념이 적지 않았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3년간, 36명을 만나, 36회의 연재를 마쳤을 때의 감회는 벅찼다. 그때 필자는 연재 원고를 갖고 책을 만들어, 제방의 큰스님 및 문중들에게 책을 보여주면 일정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인터뷰, 연재가 종료되었다. 그 시점은 2003년 12월이었다. 그러자 연재된 원고를 갖고 책을 출간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제안한 출판사는 화남과 조계종출판사이었다. 화남은 『여성불교』의 편집 책임자를 거친 방남수가 사장이었다. 방남수는 청담의 상좌인 혜성의 상좌 출신이었다.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청담문도 출신인 그가 출간을 하면 애정으로 책을 잘 만들고, 책 보급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계종단 포교원의 차장으로 있었던 박희승은 조계종단 종정을 역임하였으니, 조계종출판사에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조계종출판사의 명성, 실력 등이 미약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렇게 출판사를 결정하고 나서 필자는 청담문화재단 이사장인 동광스님을 찾아 뵈었다. 책 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랬더니 동광스님은 알았다면서, 당신의 추천사가 필요하면 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를 정중히 사양하였다.

그리고 나서 필자는 3개월간 화남출판사에 가서 디자이너와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하여 2004년 5월 10일자로 출간을 마쳤다.[14] 책(352면)의 출간은 그 무렵의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맞추어 출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화남에서는 대박(?)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못 있었다. 그래서 우선 도

인'이라고 하면서, 왜 사회인(재가자)에 포함시켰는가이다. 이런 미묘한 점(정체성)은 사전에 신중하고,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14) 『현대불교』 2004.5.18, 「36인에게 듣는 청담 스님」.

선사 스님들에게 수십 권의 책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스님 중에서 그 누구도 책을 사주겠다, 책이 잘 되었다 등등의 연락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히려 책을 왜 화남에서 출간을 하였는가, 그리고 『여성불교』에 연재하였으면 판권은 도선사에 있지 않는냐는 소식이 간접적으로 들려왔다.[15] 요컨대 약간의 기대를 걸었던 흥행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16] 그러나 필자는 불교계에서 개인의 지은이로 최초로 펴낸 구술사 책이라는 자부심은 분명히 인식하였다.

2. 한암 :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민족사, 2006)

한암은 근현대 공간에서 불교, 조계종단의 종정을 네 차례나 역임한 고승이다. 그리고 필자가 근현대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할 적에 다수의 스님들에게서 한암이 머물던 오대산 상원사 선원은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을 하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근현대 고승, 수좌들은 상원사 선원의 한암 회상에서 수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상원사에 머물던 수행자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죽을 먹고, 잘 장소도 마땅치 않아 '칼잠'을 자면서도 한암 회상으로 몰리는 연유를 알고 싶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필자는 기회가 되면 한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기회가 오면 한암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는 충동이 있었다. 마침내 필자는 2004년 여름, 『아! 청담』을 들고서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 갔다. 당시 월정사 주지는 정념스님이었다. 정념스님은 당시 속납 40대 후반의 신진기

---

15) 당시 도선사 종무소는 문광부 저작권 부서에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잡지에 연재가 되었으며, 원고료가 집행되었어도 그 연재로 일단락이 된다. 그후의 별도 출간은 집필자의 권한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것이다.

16) 필자는 그때 1쇄의 인세를 약간은 받았다. 그리고 출판사는 창고 보관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일부 책을 분쇄하겠다고 필자에게 통지하였다. 6천부 정도를 1쇄로 찍었으나, 유상 판매는 절반은 넘은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필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예로 오대산 불교문화를 정리, 복원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가 찾아가서 근현대기 오대산 불교문화의 주역인 한암이라는 고승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해서 책을 출간하자는 제안을 듣는 즉시 수용하였다. 그래서 필자와 오대산 월정사는 공동으로 인터뷰를 추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17] 그 즉시 필자와 월정사 측은 인터뷰 대상자를 협의하고 2004년 12월부터 인터뷰에 나섰다. 월정사에서는 젊은 스님 1명을 필자의 작업에 동행을 하도록 배려하였다.[18] 월정사에서는 그 다음해인 2005년 4월, 한암 스님 기일을 즈음하여 개최되는 한암문도회에 이 사업을 보고하였다. 필자는 약 1년 반에 걸친 인터뷰 작업을 해서 2005년 12월에 원고를 월정사에 제공하였다. 당시 인터뷰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한암을 친견한 스님과 재가자 : 범룡, 도원, 보경, 화산, 도견, 설산, 천운, 동성, 봉석, 창조, 덕수, 뇌묵, 경희, 진관, 법련, 황수영, 김충열, 권태호, 방진성, 방문성, 정희도, 이강호
>
> 한암을 친견치 못한 스님 : 현해, 혜거, 무여

한암의 친견자가 22명, 한암을 친견치 못한 대상자는 3명이었다. 한암은 1951년에 입적하였는데, 2004년에 인터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한암의 구술사 작업은 성립될 수 없었다. 2018년 현재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5분의 4가량)은 입적한 상태이다.

책(410면) 출간은 월정사와 연고가 많은[19] 민족사에서 담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검증은 별도 절차가 없이 민족사 사장인 윤창화 차원에서 수

---

17) 그 당시 사업의 개요(일정, 작업 비용 등)는 합의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

18) 중앙승가대 출신인 학승으로 교무를 담당한 스님이었다. 그러나 그 스님과의 동행은 4~5차례에 그쳤다. 강원도 지역의 대상자 인터뷰를 함께 하였다. 인터뷰 일정의 조율, 차량 제공 등이었다.

19) 민족사 사장인 윤창화가 월정사 출신 승려이었다가, 환속하여 출판업을 하였다.

행을 하였다. 책에 활용된 관련 사진 및 문건 자료는 필자가 수십 장을 제공하고, 도판 설명까지 하였다. 책은 인터뷰를 정리한 원고 이외에도 종정(도림 법전) 법어, 총무원장(지관) 치사, 현해(문도회 회장, 월정사 회주)의 「부처님 전에 봉행하며」, 정념(월정사 주지)의 「한암스님을 그리며」 등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한암선사의 생애와 사상」과 「후기」, 그리고 한암 연보 등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첫째 한암에 대한 연구, 이해를 풍성하게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엿볼 수 없는 한암의 인간적 면모, 생활상, 수행, 특성,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을 찾아냈다. 그래서 한암연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 부분 축적되었다. 둘째 문도회와 충실한 협조를 하는데 진행되어 사업의 회향이 원만하였다. 책 출간을 기념하여 2006년 4월 24일에 출간기념 봉정 법회가 거창하게 개최하였다.[20] 오대산 대적광전 마당에 특설 무대를 만들어 사부대중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한암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특별 세미나도 월정사 선불장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21]

필자는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의 출간을 통하여 불교 구술사의 중요성을 더욱 더 절감하였다.[22]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의 스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한암 · 탄허 · 희찬으로 이어진 문중 역사 및 오대산 불교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공고하게 되었다.

---

20) 『현대불교』 2006.4.24 「한암스님 다례재 및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봉정식 봉행」.

21) 최병헌(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종범 스님의 「한암선사의 선사상」, 김호성의 「바가바드기타와 관련해서 본 한암의 염불수선무이론」, 김광식의 「방한암과 조계종단」, 윤창화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이 발표되었다. 논평은 성본스님, 신규탁, 고영섭, 혜거스님이 담당하였다.

22) 이 책은 3쇄가 발간되었다.

3. 동산 :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영광도서, 2007·2008)

동산은 일제하 고승인 백용성의 상수제자이다. 그는 백용성 정화정신을 계승 구현하여 불교정화운동을 진두지휘한 고승이다. 또한 그는 조계종단의 종정을 역임하였고, 부산불교의 거점 도량인 범어사를 이끌던 고승이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현대불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교정화운동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문헌 자료가 희박하였다. 동산문도회에서 펴낸 『동산문집』이 있었지만, 매우 부실하여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차에 2006년도 2월, 태고종단이 『태고종사』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조계종단의 큰스님을 폄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조계종단과 태고종단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다. 이런 구도에서 그 책에 연관된 정화문도의 후손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였다.[23] 당시 필자는 이런 구도를 지켜 보면서 조계종단의 기획실의 의뢰를 받아 『태고종사』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글을 집필하였다.[24]

한편 이와 같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동산문도의 중견 승려가 있었으니 그는 원두스님이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동산이 입적한 이후 동산의 생애를 정리한 사진집인 『석영첩』을 만든 주역이었다. 이 책은 현대기 고승들의 문집을 발간케 한 촉매제를 역할을 하였다. 원두스님은 일본유학도 다녀와서 종단 및 율장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원로이었다. 원두스님은 그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사인 동산에 대한 구술사

---

23) 당시 한국일보가 위치한 송현클럽에서 해당 문도의 중견 승려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 문도들은 동산, 청담, 효봉, 경산, 월하 등이었다.

24) 필자의 그 글은 가제본이 되어 조계종단 종회의원들에게 제출되었다. 그 글은 「『태고종사』의 분석과 문제」인데 김광식,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영광도서, 2008)의 부록에 수록되었다.

작업을 하겠다는 기획을 하였다. 이런 기획에 필자를 동참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그해 4월(?) 경, 필자는 기획서를 작성하여 동산문도회의 대표 사찰인 범어사 주지인 대성스님을 만나, 제반 문제를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해 5월, 동산문도회는 필자에게 동산을 재조명하는 인터뷰 작업을 정식 의뢰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은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621면)의 편집후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 그런데 작년, 2006년 1월 『태고종사』가 발간되었다. 그 책은 정화운동을 편향적으로 단정하면서 동산대종사님을 위시한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에 대한 스님들의 인간적인 폄하와 왜곡을 심각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조계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종단 차원의 문제를 주관하였다. 그때에 정화운동을 주도한 큰스님들의 각 문도회에서는 그 책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연석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 모임에는 문도인 정관스님, 원두스님이 관여하였다.
>
> 이렇게 '태고종사 사태'가 터지자 동산문도회에서는 이를 동산대종사의 역사찾기를 위한 절치부심의 기회로 인식하였다.[25]

이런 배경 하에서 필자는 동산과 연고가 있는 승려, 재자자들을 만나기 위한 면담에 나섰다. 그 면담은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추진되었다. 구술 작업의 기획, 면담자 조율 등은 동산의 상좌인 원두스님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범어사 주지인 대성스님은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면담자 알선, 차량 제공 등 다양한 후원을 하였다. 동산문도회, 범어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필자는 6~10월 동안에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고, 원고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당시 필자가 인터뷰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25)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pp.618~619.

스님 : 종산, 도천, 정영, 보성, 초우, 월운, 석산, 인환, 진경, 석정
지원, 현해, 도문, 월탄, 현수, 묘엄, 천제, 정관, 백운, 대정
동근, 향운, 선과, 혜운, 선래, 혜총, 일미, 도근, 계전, 여현, 반월

재가자 : 오정자

이렇듯이 대상자는 동산을 만났던 문도승려, 종단의 큰스님, 중견승려 등 다양한 인물들이었다. 그후 필자는 생산된 원고를 문도회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았다.

> 그리하여 이런 고난의 작업을 거쳐 2006년 10월에는 1차 성과물인 33명의 인터뷰 성과물을 상재할 수 있었다. 이에 동산문도회의 스님들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지적, 부족한 문제를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부터 작업의 성과물을 편집하고, 세 차례에 걸친 교정작업을 걸쳐 본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책의 편집에 반영된 다양한 사진, 자료는 김광식 교수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과정부터 사진 작업에 참여한 범어사 석공스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의해서 가능하였다.[26]

이렇게 이 책은 정상적인 협의, 편집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쳤다. 동산문도회, 범어사의 적지 않은 후원을 받으며 진행되어 2007년 5월 1일에 책은 출간되었다. 책은 2종으로 출간하였는데 1종은 동산문도회와 김광식이 공동의 지은이로 하여 범어사에서 출간하는 법보시판이었고, 별도의 1종은 김광식의 지은이로 영광도서에서 펴내는 보급판이었다.

인터뷰, 책 출간을 진두지휘한 범어사 주지인 대성스님은 책이 나오자마자 즉시, 범어사 종무소 스님들과 함께 동산의 부도탑과 보제루에서 책을 놓고 간단한 고불식을 하였다. 그리고 5월 8일에 범어사에서 개최되는 출간기념회와 학술세미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27] 그러나 책이 나왔

---

26) 앞의 책, pp.620~621.
27) 행사 10일 전에 『불교신문』의 사전 광고로 홍보하였다.

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문도회의 일부 스님들이[28] 문제 제기에 나섰다. 즉, 책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건의서'가 제출되었다.[29] 그래서 출간기념회는 취소되고, 학술세미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구술사 작업은 돌출 변수가 적지 않다. 동산의 사례는 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구술 인터뷰 작업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밀한 정리로 개진하고자 한다.

출간기념일(5월 8일), 그로부터 1개월 후인 6월 16일 편집자인 필자는

---

28) OO교, OO래, OO광 등 8인이었다.

29)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의서

삼가 건의합니다.

이번에 동산문도회와 김광식의 이름으로 출판한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이라는 책을 보급하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책의 출판 목적은 동산대종사의 청정한 승행과 높은 덕을 기리고 특히 정화불사에 숨은 공로를 드러내어 큰스님의 정화불사 정신을 되살리고 높은 덕을 칭송하여 제자들이 본받고 승가의 귀감이 되게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1. 종정 투표과정의 문제와
2. 동산스님의 법맥이 성철스님과 지효스님으로 아직 미정이라는 문제의 지적과
3. 성철스님 정화불참, 내지 정화 반대 문제와
4. 동산스님 독선 운운하는 언급과
5. 능가스님이 전국 산판을 다했다는 문제와
6. 논 2마지의 값을 집에 보낸 이야기와
7. 용성스님 돈 거절의 이야기와
8. 정화 때 깡패 동원 문제와
9. 해인사 비석 삭제 문제와
10. 용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는 문제와
11. 임환경 스님과 용성스님과의 문제 제기와
12. 은사를 바꾼 문제와
13. 의도적으로 임환경, 용봉 등등 정화와는 관계없는 동산스님의 덕화에 먹칠을 하는 문제들을 들추어 유도 질문하는 형식 등등으로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간의 큰스님의 덕을 반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한 뒤에 다시 출판하시기를 건의합니다.

불기 2551년 5월 1일

범어사 종무회의에 참석하여 그간의 경과 보고 및 현황을 설명하였다. 종무회의에 참가한 스님들은 건의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하면서, 중단되었던 책자의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문도간의 화합을 위해서 경과보고 및 의견서에 대한 편집자 의견을 듣는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07년 6월 20일, 범어사에서 보고회를 가졌다.[30] 당시 필자는 그 보고회에서 문제의 건의서 사본을 배포하고 사업의 추진 배경, 내용, 건의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때 필자는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건의서에 대한 의견'이라는 소책자(33면)를[31] 만들어 배포하였다. 필자는 문도들과 가진 책의 편집을 위한 1차회의(2006.10.25), 2차회의(2007.3.2)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이렇듯이 정상적으로 편집회의를 진행한 2차회의에서 범어사 주지인 대성스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책을 출간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스님도 필자의 의견 개진에 특별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32]

이렇게 상식적인 절차, 협의를 거쳐서 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문제를 피력한 모 스님은 편집 2차회의에 참여했고, 출간 2개월 전에는 가제본 원고를 읽어 보았다. 그렇다면 책 내용에 이의가 있었다면 편집의 실무가 진행될 때에 종무소측이나 필자에게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되자마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여간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33]

---

30) 당시 그 모임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 원두스님, 홍교스님 그리고 범어사 부주지 범산스님을 비롯한 7직 국장 스님들이 참가하였다.

31) 그 책자에는 건의서에서 지적한 13개 문제에 대한 대응적인 답변을 한 견해의 내용(10항), 편집자의 견해, 부록(『태고종사』, 수좌대회록, 회고, 방함록 등 12건 자료)이 나온다.

32) 다만 그 스님은 당신은 如法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범어사 종무소와 필자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일부 이견이 제기되었지만 춘추대의, 구술사의 방법론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해 가을의 범어사 개산대제 행사에 출간 행사를 간단하게 치루었다. 행사는 경과보고, 봉정, 감사패 수여[34] 등에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친 후에 책은 공개, 배포되었다.[35]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동산을 주제로 추진한 1차 구술사업은 큰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책 출간 기념 행사 무렵에 돌출 문제로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가졌다. 그렇지만 필자와 범어사 주지인 대성스님, 원두 스님은 이번 기회에 동산대종사와 범어사가 갖는 위상, 불교정화운동 본부이었던 범어사의 역사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8명을 인터뷰를 하여 원고를 만들 수 있었다. 인터뷰한 추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스님 : 능가, 지유, 도견, 지종, 고산, 진제, 의현, 명선, 종원, 현성
월파, 설조, 청현, 원두, 대성, 경암, 김광태

재가자 : 현욱

이들 대부분은 동산의 제자들이었지만, 정화운동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도 있었다. 필자는 이들을 인터뷰한 원고, 그리고 2007년 5월 8일 범어사에서 발표된 논고 등,[36] 그리고 동산 및 범어사 구술사 사업을 촉발

---

33) 편집진(00두 스님)과 문제 제기측(00교 스님)은 만나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접점을 만들지 못하였다. 편집진은 일부 문장은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출간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였지만 문제를 제기한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4) 동산문도회 문장인 능가스님이 필자에게 주었는데 능가스님은 필자에게 연구지원비(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감사패와 연구지원비는 능가의 손상좌인 수불스님이 전달하였다.

35) 『불교신문』 2007.12.5, 「김광식교수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발간'」.

36) 마성(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 김광식(하동산의 불교정화), 덕산(원두, 용

케 한 『태고종사』를 분석한 김광식 논고 등을 부록으로 하여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691면)이라는 책 출간을 하였다. 출간 시점은 2008년 4월 10일이었다. 출간은 2종으로 하였는데 1종은 불교교단사연구소 · 김광식을 지은이로 하여, 범어사가 출간 주체로 나왔다. 불교교단사연구소(소장, 원두)가 개입된 것은 1차 작업 시에 일부 동산문도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동산문도회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타 1종은 김광식을 지은이로 하여 영광도서에서 펴냈다.

한편 책에는 백용성, 하동산, 범어사, 불교정화운동 등의 근현대기의 사진 자료, 문건 등이 대거 수록되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에는 화보와 책 중간에 많은 사진(170여장)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에서도 역시 도입부에 화보를 두고, 책 중간에 다양한 사진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흥미와 가독성을 높이게 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동산의 은사인 백용성이 동산에게 보낸 전법게(대각사에 있었던 백용성이 장안사 선원에서 정진중인 동산에게 보낸 전법게문) 사진을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산이 백용성의 상수제자, 법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입증할 자료가 부재하였다. 그러던 차에 그를 입증할 문건(전법게)을 성철스님 측(겁외사, 혹은 해인사 백련암? 보관)에서 사진으로 필자가 입수하였던 것이다. 이 문건을 문도스님들에게 소개하였을 당시 문도스님들의 환희에 찬 박수소리를 필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여간 동산, 범어사의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구술사 작업은 많은 사연, 희열을 남기고 마감되었다. 이때 발간된 두 권의 책은 동산, 근현대기 범어사, 불교정화운동을 연구, 이해하는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성문도와 불교정화 이념)의 논고가 게재되었다. 그리고 능가(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제문제), 인환(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을 다시 보며), 신규탁(성철선사의 불교관에 나타난 개혁적 요소 고찰)의 글도 수록되었다.

4. 석암 :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석암문도회, 2011.5)

석암은 현대 율사로 명성이 있는 고승이었다. 그런데 그는 주로 부산권에서 활동하였고, 중앙 및 종단 차원의 일에는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고승이지만, 그의 수행력 및 인품은 승가에서는 알려졌다.

필자는 동산에 대한 구술사 작업을 하면서 석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었다. 특히 동산이 그의 율맥 계승자, 계단 책임자로 지정한 당사자가 석암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더 그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그러다가 석암의 율맥을 계승한 인환스님으로부터 작업에 나서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전후 사정은 필자의 아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러다가 2008년 11월 경, 석암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인환스님으로부터 석암스님 찾기에 나서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직후인 2009년 1월, 필자는 석암스님의 상좌로서 석암스님 사상 조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정련스님으로부터 석암스님 역사 찾기에 대한 고뇌를 청취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석암문도회 스님들도 모임을 갖고 석암스님의 역사 찾기에 대한 기본원칙, 방향을 수립하였다.[37]

이처럼 석암의 구술사는 인환(동국대 명예교수)의 촉발에서 시작되어, 석암의 제자인 정련(전, 동국대 이사장)의 결단에서 추진되었다.[38] 인터뷰 진행에는 자문위원 역할을 한 인환스님과 남전스님(석암 제자)의 도움이 많았다. 그리고 석암문도회의 문장인 원응스님(지리산, 서암정사)의 배려도 적지 않았다.[39] 이런 배경에서 인터뷰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37) 『처처에 나툰 보살행』, 석암문도회, 2011, p.502.

38) 또한 여기에는 석암에게 율맥을 받은 현성(도선사 조실, 동국학원 이사)의 강력한 사업 추진도 작용하였다.

39) 그런데 문도인 동춘스님은 경주 기림사 옆의 토굴까지 필자가 남전스님과 함께

스님 : 성수, 능가, 보성, 도성, 성공, 원응, 고산, 인환, 동림, 현성
향운, 종진, 혜총, 종학, 성림, 용석, 지우, 효관, 남전, 정련

재가자 : 차현규, 강문성

이들은 석암의 제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상자들인 22명이었다. 필자는 2009년 1월 초부터 2010년 중반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2010년 겨울에는 원고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도회와 상의하여 출판사를 정하고, 책의 성격을 정하였다. 책은 법보시 성격으로 정하였고, 출판사는 문도회의 정련스님과 인연이 있었던[40] 불광출판사로 정하였다. 책의 도입부에는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의 「석암선사의 禪사상」, 인환스님의 「석암노사의 律身과 願行」의 논고를 수록하였다. 책 내용의 전반적인 감수는 정련스님이 담당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11년 5월,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석암문도회, 2011)이 503면의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책은 김광식 엮음, 편집 및 제작은 불광출판사, 석암문도회를 발간처로 해서 나왔다. 이 책에도 관련 사진, 문건, 보도기사 등 100여장을 수록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문도들은 석암의 탄신 100년과 입적 24주기를 맞이하여 석암의 비석이 있는 연고 도량인 내원정사(부산) 법당에서 봉정을 하였다. 발간된 책에 미세한 흠결이[41] 발간 이후에 발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불사이었다.

찾아 갔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석암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면 되지, 굳이 책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이라고 발언하였다.

40) 정련스님은 1990년대 후반 경 포교원장을 역임하였는데, 그 당시 포교원 직원으로 있었던 이상근이 불광출판사의 편집 기획자이었던 연고가 작용하였다.

41) 그는 212면에 수록된 사진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정정된 사진(혜월스님이 석호스님에게 준 전법게문)을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5. 희찬 : 『오대산의 버팀목 - 만화 희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월정사, 2011.11)

오대산 중흥주로 지칭되고 있는 희찬에 대한 구술 작업을 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펴낸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에서 촉발되었다. 필자는 한암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오대산 불교에 대한 관심, 이해가 깊어졌다. 이에 한암, 탄허, 희찬에 대한 역사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오대산, 월정사 본말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인 희찬의 문도들과 더욱 더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월정사 스님들은 필자에게 오대산 중흥주인 희찬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하고 책을 발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필자는 오대산 불교의 현재를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흔쾌하게 그를 수용하였다.

인터뷰 작업은 2010년 1월부터 시작되어, 2011년 초반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월정사 주지인 정념스님, 그리고 희찬의 상좌 출신으로 민족사 사장인 윤창화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원로 스님 : 도광, 월탄, 재덕, 등각, 동수, 경덕
문도 스님 : 인보, 혜거, 각수, 삼지, 삼보, 일봉, 난승, 무이, 뇌묵, 묘행
직제자 스님 : 현해, 월면, 현보, 현각, 원행, 선혜, 도완, 현기, 정념, 화광, 일관, 행담, 현풍
재가 제자 : 현종, 현덕, 창화
재가 인연 : 덕운, 희묵, 우담, 명호근, 정희도, 김영칠, 장길환, 이부길

위와 같이 인터뷰 대상자는 원로스님, 제자 스님, 재가자 등 총 40명이었다. 인터뷰는 월정사, 문도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원고 작업은 2011년 5월경에 마감되어, 월정사가 지정한 편집, 제작업체인 민족사에 전달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수와 책의 기획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은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담당하였다. 책에는 박부영(불교신문 기자)의 「오대산 월정사 중창과 만화 희찬선사」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부록으로 희찬의 월정사 중건 상량문이 수록되었으며, 도입부에 관련 사진이 화보에 게재되었다.

책(806면)은 월정사 · 김광식 엮음으로, 편집 및 제작은 민족사, 발간처는 오대산 월정사로 하여 2011년 11월 20일에 나왔다. 이 책은 상업 출판은 하지 않고, 법보시 보급판으로 하였다. 출간 행사, 즉 봉정식은 2011년 12월 초 월정사 대웅전에서 열린 희찬의 기제사에서 있었다. 이 책에는 오대산 중창불사, 한암 - 탄허 - 희찬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문중, 월정사의 근현대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대거 포함되었다.

6. 보문 : 『보문선사 - 신화속으로 사라진 선승』(민족사, 2012.6)

보문이라는 고승은 은둔적인 수행자로 선방의 지대방에 자주 등장하였다. 그런데 그는 오대산 도인 한암의 선 방면 수제자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선방과 오대산권에서는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대산 이외의 승려, 일반 대중은 잘 모르는 고승이었다.

이와 같은 보문에 대해서 필자는 2002년 무렵에 가서야 접하게 되었다. 그 시절 필자는 청담, 성철을 연구하면서 봉암사 결사에 대한 논고를 집필하였다. 그 연구 과정으로 자료 수집, 분석을 하면서 보문이라는 대상자를 처음으로 접하였다. 그리고 그후, 2005년 무렵 한암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증언을 하였던 스님들을 통하여 보문이라는 수행자의 소문, 진실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보문의 문도인 환경이라는 수좌 스님을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 구술사 작업에 나서게 한 동기이었다.

그러다가 필자는 2010년 11월 지허스님의 유고를 정리하여 펴낸 책인 『사벽의 대화』의 출간에 관여하고 해제를 담당하였다. 지허스님은 불교 베스트셀러이었던 『선방일기』의 저자였다. 그런데 그때에 보문스님의 문도인

선방 수좌 환경스님을 운명적으로 만났다. 필자와 환경스님은 지허스님의 행적을 찾기 위하여 경상도 오지를 탐방하였는데, 그때에 필자는 환경스님의 토굴인 만회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바로 그 하룻밤의 신세가 본서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그날 환경스님은 필자에게 "우리 문도의 큰스님인 보문스님의 책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는 의례적으로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스님은 필자의 의례적인 말을 들은 직후 보문문도회의 스님인 무관스님, 무여스님을 찾아가서 보문스님 찾기라는 '대작불사'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필자는 2010년 12월부터 보문스님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필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 및 녹취 작업은 어렵게 진행되었다.[42]

필자의 위의 회고 글에 나오듯이 보문의 손상좌인 환경스님에 의해 그 작업은 촉발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보문문도회의 무관스님과 무여스님을 만나 사업의 추진에 동의를 받고[43] 2010년 12월부터 2011년 여름까지 인터뷰 추진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았다.

스님 : 도견, 화산, 성수, 도원, 녹원, 보성, 초우, 원명, 도문, 도성, 현해, 경희, 혜총, 대안, 동수, 인보, 정념, 무관, 무여
재가자 : 현종, 신상철, 김호성

위와 같이 22명을 필자는 만났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문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2011년 여름 무렵, 작성된 원고를 문도회 대표격인 보문의 손상좌인 무여스님에게 제출하였다. 무여스님은 그 원고를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필자에게 부탁하였다. 필자는 몇 문장을 수정하여 원고 작성을 마무리 하였다. 책 출간은 보문의 출신 문중인 오대산 월정사와 연고가 있는 민족사에게

42) 보문문도회·김광식, 『보문선사 - 신화속으로 사라진 선승』, 민족사, 2012, pp.372~373.
43) 2011년 1월 4일에 무여스님과 축서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편집, 제작을 의뢰하였다. 책의 구성은 추천사(현해), 간행사(무관), 서문(무여), 부록이었다. 부록은 연보, 보문이 포교할 때에 쓰인 권유문, 후기 등이었다. 이 책에도 필자는 사진, 문건, 방함록, 보도기사 등 수십여장을 포함시켰다. 보문은 평소 단 한명의 상좌인 희섭에게 절대로 비석을 세우거나, 책을 내지 못하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희섭은 책을 낼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손상좌의 결단에 의해서 출간이 되었다. 이로써 이 책은 오대산 불교문화를 보충하고, 조계종단 선풍의 외연성을 넓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 책(374면)의 간행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한암의 선사상을 계승한 것, 봉암사 결사의 주역, 성철스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보문의 정체성 등이었다. 그리고 채록 및 원고 작성에서 유의한 것은 성철스님과의 비교,[44] 보문의 특성으로 인한 오대산 문중과 성철문도 간의 불편성 등이었다.

문도회에서는 2012년 6월, 보문의 기일 행사장인 축서사에서 간단한 봉정식을 거행하였다.[45] 책이 간행되자 제방 선승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래서 이 책은 2012년 9월에 3쇄를 발간하였고, 봉암사 선방에 법보시로도 배포되었으며, 일부 선승들에 의해 소리없이 보문선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7. 탄허 : 『방산굴의 무영수』(상, 하)(민족사, 2013.2)

필자는 오대산 불교사상, 문화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탄허에 대한 구술사 작업을 하기 이전에 한암, 희찬, 보문의 구술사 작업을 하여 관련 책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그런 작업 과정에서는 항상 탄허가 자주

---

44) 성철에 대한 신화적인 위상, 절대적인 영향력이 풍미하는 조계종단 현실에서 성철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이다.

45) 『법보신문』 2012.6.19, 「보문선사 : 한암스님 선지 이은 보문선사 생애 조명」. 『불교신문』 2012.6.27, 「보문선사 : 새벽에도 어제밤처럼 앉아 있었다」.

회자되었다.

> 탄허스님은 지금껏 대강백, 대학자, 역경가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대산 불교의 증언 작업을 하면 할수록 탄허스님의 기존 정체성에 대하여 깊은 의아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탄허스님에 대한 총체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탄허스님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다. (중략)
>
> 이런 배경 하에서 탄허스님의 탄신 100주년, 입적 30주년을 기하여 탄허스님을 다시 찾기, 재조명하기 차원에서 본 구술 증언 자료집이 기획, 준비되었다.[46]

이와 같이 탄허 구술사 작업은 탄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탄신 100주년과 입적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필자와 월정사 주지인 정념스님은 한암, 희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탄허 구술사 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2011년 5월부터 인터뷰 작업을 시작하여, 2012년 11월경까지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났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도반, 법제자 : 석주, 범룡, 각성, 통광, 무비, 시몽, 연관, 일장, 동수, 성파, 법산
> 문도 직계제자 : 현해, 인보, 혜거, 각수, 삼보, 부동, 정념, 정광, 원행
> 수도원 시절 인연 : 도원, 도문, 월주, 정무, 활안, 법등
> 비구니 제자 : 진관, 명성, 성법, 명우, 자민, 해운, 성일, 경희, 계호
> 재가인연 : 이동식, 김종서, 최창규, 최승순, 박재원, 김희옥, 김의정, 이영자, 박금규, 진민자, 전보삼, 채원화, 최정화, 이동형, 권영채
> 재가 제자 : 박용열, 전창열, 명호근, 고준환, 서우담, 김문환, 김동건, 박명혜, 장화수, 송찬우, 여익구, 박완식, 심백강, 윤창화, 최옥화

이렇게 스님 35명과 재가자 30명, 총 65명을 인터뷰하였던 것이다.[47]

---

46) 『방산굴의 무영수』 하, p.412.

2년이라는 기간에 이처럼 65명을 인터뷰하여 채록을 하고, 원고를 완성하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필자와 월정사, 탄허문도회와 공고한 결합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책의 출간은 월정사와 인연이 깊은 민족사에 의뢰되었다. 책은 2013년 2월 20일에 2권으로 발간되었는데 '탄허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 증언집'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즉 『방산굴의 무영수』(상, 478면)은 스님들의 인터뷰를, 『방산굴의 무영수』(하, 414면)는 재가자들의 인터뷰를 수록하였다. 부록으로는 문보와 연보(상권), 그리고 편집 후기(하권)를 게재하였다. 편자는 월정사 · 김광식이었고, 발행처는 오대산 월정사이었다. 문도회에서는 이 책을 2013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4일, 월정사 대적광전에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에서 봉정하였다.[48] 다례재와 봉정식에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한암문도회 운영위원장 월면스님, 월정사 선덕 각수 스님,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 등 상좌 스님을 비롯해 만월 선원 수행자 스님, 산내 암자 비구니 스님, 재가제자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석례 평창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책은 『중앙일보』에서 크게 보도하여,[49] 일반 대중들의 큰 반응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책 출간 이전에 『현대불교』에 중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방산굴 무영수'」이라는 특집으로 연재를 하였다.

---

47) 그런데 일부 대상자는 이전 녹취록을 정리하여 편입하였다. 그는 석주스님(2002년), 범룡스님(2002년), 박용렬(2010년)이다.

48) 『불교신문』 2013.2.24, 「탄허스님 탄생 100주년 다례재 일화집 등 봉정법회」.

49) 『중앙일보』 2013.3.13, 「후학들이 생생하게 되살린 탄허 스님 삶 '방산굴의 무영수 상·하' / 월정사·김광식 엮음/오대산월정사」.

8. 벽안 : 『청백가풍의 표상 - 벽안스님의 수행과 가르침』(벽안문도회, 2013.12)

벽안은 현대기 통도사의 고승이다. 통도사 고승으로는 구하, 경봉을 거론한다. 그런데 구하의 상좌는 월하이고, 경봉의 맞상좌가 벽안이다. 그렇지만 구하, 경봉, 월하는 널리 회자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벽안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품, 종무행정의 실력, 종단에 대한 헌신, 후학에 대한 가르침 등에 나타난 올곧은 수행자로 인식하는 스님들이 많다. 필자도 현대기 통도사를 연구하면서 구하, 경봉, 월하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벽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이런 실정이었는데 필자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소임을 보고 있었던 범하스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2012년 5월에 받았다.[50] 만남의 취지는 당신의 은사인 벽안에 대한 구술 인터뷰 작업을 하여 책을 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벽안에 대한 구술사 작업은 시작되었다.

> 본 책자는 벽안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 전법하고 있는 벽안문도 스님들의 자생적인 발의에서 시작되었다. 그 기획, 사업 추진 등은 2013년 1월에 입적하신 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이었던 범하스님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범하 스님은 이 사업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영면하였고, 범하스님이 담당한 업무를 벽안스님의 상좌인 지안스님이 받아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작업의 산물은 벽안문도 차원에 머물 수 없다. 이 책의 의의는 통도사의 현대사, 조계종단사, 한국 현대불교사의 지평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1]

---

50) 필자와 범하스님은 백양사 선승인 백학명을 알았던 인연에서 친근하게 지냈다. 필자는 백학명의 선농불교를 연구하여 논고를 집필하였고, 범하스님은 통도사성보박물관에 백학명의 달마도를 보관하였던 사정이 있었다. 이 달마도는 석정스님이 기증한 것이다.

51) 김광식 엮음, 『청백가풍의 표상』, 벽안문도회, 2013, p.467.

위의 기록에 보이듯 벽안 구술사 작업은 벽안문도회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2012년 10월 3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문도들과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였다.[52] 그래서 2012년 10월부터 필자는 인터뷰 대상자를 문도측 추진위원장인 지안스님과 상의를 하면서 인터뷰에 나섰다. 그리고 사업의 행정, 추진 등의 문제는 문도회 간사인 무애스님(통도사)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터뷰를 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방의 스님 : 월운, 인환, 명선, 월주, 월탄, 현해, 지하, 무비
통도사 문중스님 : 원명, 초우, 월파, 성파, 태응, 명정, 원산, 법산, 현문
문도 스님 : 눌암, 종범, 지안, 인산, 지태, 법선, 지선

이렇듯이 24명의 스님을 만났다.[53] 필자는 2013년 5월경에 인터뷰를 마감하고 원고 작성을 완료하였다. 이 책의 원고 작성에서 특기할 것은 필자는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벽안스님의 문건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별도 부분으로 수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내용은 서간문, 기고문, 보도기사, 추도사, 비석과 부도 등이었다. 이런 내용만을 별도로 책을 낼 수 없기에 이번 기회에 책에 함께 수록하여 후학, 문도스님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었다. 이에 대한 기획은 추진위원장인 지안스님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1부에서는 '우리가 만난 벽안스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의 내용을, 2부에서는 '서간문·기고문· 보도기사에 나타난 스님'이라는 내용을 배열하였다.

---

52) 당시 범하스님은 심신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당신이 기획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날 문도회의 간부급 스님 10명이 참석하였다. 벽안문도회 문장(눌암스님), 벽안문도 정묵회의 종현스님과 필자가 함께 서명하였다.

53) 일부 스님들은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동림스님, 불필스님, 지성스님, 고옥스님 등이다. 그리고 많은 인연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에 거주하였던 현호스님(송광사)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홍교스님(동산제자)도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그 무렵 입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은 불광출판사에 편집,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는 불광출판사의 명성과 지안스님의 인연이[54] 작용한 결과이었다. 이 책에서도 필자는 사진, 기사, 문건 등 100여장을 수록하여[55] 가독성과 흥미성에 유의하였다. 책(469면)은 2013년 12월 16일자로 법보시판으로 발행되었다.[56] 문도들은 이 책을 갖고 입적 25주기를 맞는 벽안스님 기일 다례재(12월 2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정을 하였다. 이 책으로 벽안문도, 경봉문도 스님들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제방에서도 훌륭한 자료집이라는 칭찬, 소문이 자자하였다.

9. 자운 : 『자운대율사』(자운문도회, 2017)

자운은 백용성의 법을 받은 고승이다. 필자는 백용성을 연구하였던 연고로 평소에 자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집이 부재하여 연구를 심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자운에 대한 자료집은 자운의 상좌이었던 지관스님(동국대 총장, 총무원장 등의 역임)이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그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전후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인환스님은 필자에게 구술사 작업을 통해 자료집의 발간을 권유하였다. 물론 이 권유를 자운문도회의 대표인 세민스님도 동의하였다.

> 이런 정황을 안타깝게 여긴 인환 큰스님은 자운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을 찾아서 증언을 채록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자운스님의 진면목에 접근하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책을 만들도록 문도스님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중략)
>
> 2016년 1월 18일, 해인사에서 지관대종사 기일 추모재를 마친 문도스님

54) 지안스님은 불광출판사에서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55) 사진은 무애스님, 송천스님, 엔솔의 윤은자, 김윤희님 등에게 협조를 받았다.
56) 『불교신문』 2014.1.11, 「신간안내 ; 내 마음의 지도자' 스님 그립습니다 : 청백가풍의 표상」.

들은 홍제암에서 문도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문도스님들은 자운스님의 책자 발간과 지관스님의 비석 건립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책자 발간의 실무자인 필자는 그로부터 1년간 전국을 돌면서 자운스님의 역사 찾기에 나섰습니다.[57]

위의 글에 나오듯이 인환스님의 제안, 문도스님들의 결정, 필자의 동참이 결합한 가운데 자운의 구술사 작업은 가동되었다. 필자는 자운문도회의 대표인 세민스님과 일 추진에 따른 협약서를 2016년 2월 10일[58] 해인사 홍제암에서 체결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자운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 재가자를 만났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연 스님 : 인환, 보성, 도성, 도문, 의현, 종진, 성우, 원두, 천제, 법혜
무관, 혜인, 원택, 지환, 성범
문도 스님 : 세민, 종성, 혜총, 효광, 태원, 해운, 경성
비구니 스님 : 명성, 묘관, 묘성, 계호, 적연
재가자 : 권기종, 김철, 일심행

이와 같이 필자는 스님 27명, 재가자 3명 등 총 30명을 인터뷰 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2016년 11월 경에 인터뷰를 마치고, 원고 작성을 완료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필자는 벽안의 사례와 같이 인터뷰와 함께 자운의 관련 자료도 함께 모아 수록하는 것을 정하였다. 그래서 자운의 기고문, 서문, 발문, 강연초, 대담, 추도사, 비문 등을 수집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다. 즉 1부는 '우리가 만난 자운율사'라는 주제로, 2부는 '기고문 · 서문 등으로 본 자운율사'로 구성을 하여, 편집을 하였다.

원고 작성을 마친 필자는 이 원고를 인터뷰한 대상자들에게 보내 오류를 바로 잡게 하였다.[59] 책의 편집 및 제작은 불광출판사에 의뢰하였다.

---

57) 『자운대율사』, 2017, p.539.
58) 자운스님의 기일 다례재(음력 1월 4일), 1일 전이었다.
59) 이는 문도회 대표인 세민스님의 강력한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불광출판사의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지홍스님이었던 측면이 반영되었다. 즉 지홍스님은 광덕스님의 상좌이었는데, 광덕스님은 백용성의 손상좌이었던 용성문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는 도입부에 화보를 두었다. 자운의 관련 사진, 책, 보도기사 등을 게재하여 흥미를 유발케 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연보, 문도, 편집후기를 두었다.

마침내 책(541면)은 김광식 엮음, 발간처는 자운문도회의 법보시판으로 2017년 6월 5일에 간행되었다. 문도들은 2017년 6월 5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개최된 '지관대종사 사리탑·비 제막식'에서 봉정을 하였다.[60] 가산당 지관대종사 문도회(대표 세민스님)와 탑·비 건립위원회(위원장 설정스님)가 주관한 그 행사에서 이 책은 봉정되고, 일반인에게도 배포되었다.[61]

이 책은 자운의 생애와 사상, 용성문도, 성철, 현대기 해인사 및 조계종단, 율원, 율사 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집이다. 자운 열반 25주기를 맞이하여 간행된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기 최고의 율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고승, 자운의 내면에 다가설 수 있는 징검다리를 얻은 셈이다.

10. 관응 : 『관응 대종사 黃岳一旨錄』(관응문도회, 2018)

관응은 직지사 출신의 강백이다. 한국 현대불교의 강백으로 명성이 높은 대상은 운허, 탄허, 관응을 거론한다. 운허는 봉선사에서, 탄허는 탄허불교문화재단 및 월정사에서 문손이 중심이 되어 역사를 정리, 분석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응에 대한 정리와 해석, 학술적인 작업은 그간 일체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응 자료집이 부재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0) 『불교신문』 2016.5.26, 「지관대종사 사리탑과 비 조성 6월 5일 해인사 홍제암서 제막」.
61) 필자는 봉정식에서 자운문도회 대표(세민스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62] 그간 관응의 연고 사찰인 직지사 중암에서는 2004년 관응이 입적한 이후, 관응의 비석 건립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관응 비석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관응의 은사인 탄옹 비석이 그때까지도 건립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문도들은 우선 탄옹 비석을 세우기로 하였다. 마침내 탄옹 비석을 2010년에 건립한[63] 이후, 관응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즉 관응 문도스님들은 2015년 3월 28일 직지사 중암에서 관응당 대종사 열반 11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하였다. 이렇게 제막식 행사를 마치자 문도회에서는 자료집 발간에 유의하였다.

마침내 2016년 여름에 관응을 조명하는 구술사 사업을 하기로 문도회에서 정하였다. 이런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필자는 기획서를 문도회에 제출하는 등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 이런 배경에서 2016년 9월 필자와 문도회는 협약을 하였다. 즉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성과물을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2016년 10월부터 전국을 순방하면서 관응의 역사 찾기에 나섰다. 인터뷰 할 대상자의 선정, 조율은 관응의 손상좌이면서 문도회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지사 중암의 도진스님이 담당하였다.[64] 필자는 2017년 10월에 원고 작성을 마무리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터뷰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연 비구스님 : 법인, 법홍, 월주, 도문, 현성, 각성, 설정, 무비, 성운, 정휴, 동주, 원오

---

62) 그는 관응의 법제자인 연관스님(봉암사)과 관응의 세속 인연을 갖고 있는 명성스님(운문사)이다. 그리고 관응스님에게서 출가 인연을 받은 진광스님(운문사 주지)도 적극 개입하였다.

63) 그 시점은 그해 3월 15일이었다. 그때, 필자는 직지사 출신인 종명스님(동국대 대학원)의 주선으로 녹원스님을 만나, 탄옹 비석 건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요청받았다. 그래서 1년 정도 자료수집을 하여 녹원스님에게 자료 전달을 하였다. 비석 제막식 당시 필자는 직지사 주지인 성웅 스님에게 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강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64) 대상자 추천, 조율은 명성스님의 자문도 받아 진행하였다.

법제자 스님 : 원산, 재원, 연관, 자일, 원욱, 진성, 성정
문도스님 : 덕해, 도윤, 송원, 혜창, 법등, 세연, 도진
인연 비구니 스님 : 성법, 경희, 명성, 명우, 자민, 자광, 계호, 일진, 진광, 도광
재가불자 : 정해창, 송석구, 오형근, 권중달, 송철용, 김호석, 김성규

이렇듯이 스님 36명, 재가자 7명 등 총 43명을 인터뷰하였다.[65] 필자는 2017년 10월, 인터뷰 원고를 문도회(직지사 중암)에 제공하였다. 문도회에서는 이 원고를 관응의 법제자인 연관스님(봉암사 선덕)이 교정을 보도록 하였다. 그후 책은 도진스님(직지사 중암 회주)이 감수를 하여 나왔다.

책의 편집은[66] 당초에 문도회에서 직접 주관하기로 하였으나, 관응 법제자들이 실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응대종사 문도회를 엮은이로 하여 책은 『관응대종사 황악일지록』(702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67] 책은 2018년 3월 25일자로 발간되어, 직지사 중암에서 개최된 관응대종사 14주기 기일 날(2018.3.25)에 배포되었다. 책의 지은이(엮은이)는[68] 필자가 책의 표지에 기재되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이 점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쨌든 필자는 책의 편집 발간 실무를 하지 않았으나,[69] 책의

---

65) 인터뷰를 거절, 사양한 대상자도 있었다. 그들은 도원(파계사), 덕민(불국사), 선래(범어사) 스님 등이다. 인터뷰 하여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누락된 대상자(민족사 대표, 윤창화)가 있었다. 이는 교열자 역할을 한 연관스님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었다. 필자는 이를 책이 출간된 이후 확인하였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66) 책의 디자인은 ㈜끄레 어소시에이츠가 담당하였다. 책의 편집과 인쇄는 출판사 '호미'가 담당하였다고 교열자인 연관스님이 필자에게 우연적으로 통보하였다.

67) 책은 35,000원 정가로 상업출판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행하는 법보시판이 아니었다.

68) 책의 엮은이는 문도회로 책에 기재되었고, 펴낸 곳은 직지사 중암이었다.

69) 필자와 책의 편집 주체 간에 소통 부재가 있었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책의 일부 내용에 아쉬움이 있었다. 예컨대 필자가 수집한 관련 사진 자료가 일체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관응의 비석 사진도 누락되었다. 관응에게 전강을 받은 전강제자들의 기념 촬영이 누락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운문사 명성스님의 부탁으로, 명성스님 소장 사진앨범에서 사진 10여매는 선정되었다. 이 사진은 운문사 주지(진광스님)가 당시 봉암사에 주석한 연관스님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를[70] 작성하였고, 책이 나오게 한 주역이었다는 사실을[71] 역사에 기록한다.

11. 경봉

경봉은 통도사의 고승이다. 그는 1982년 91세의 속납으로 생존하다가 열반하였기에 그의 삶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 그 자체이다. 또한 그는 통도사 극락암에서 수십만의 대중을 울고, 웃기게 한 선사이었기에 그의 명성은 매우 높다. 또한 그가 보관한 자료는 방대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더욱이 그의 상좌인 명정은 경봉의 자료집을 다양하게 펴냈다. 『법해』, 『속법해』, 『원광한화』, 『삼소굴의 소식』, 『경봉대선사 일기』, 『야반삼경에 대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경봉스님 말씀』을 비롯하여 유묵집, 사진집 등 다양하였다. 또한 경봉에 대한 일대기, 소설, 산문집 등 다양한 책이 나왔다.

그런데 경봉 입적 30주년이었던 2012년에 문도회는 불교TV와 공동으로 경봉 입적 3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타리를 제작하여 2회로 나누어 방영하였다. 그때 필자도 인터뷰에 응하였다. 방영이 종료된 이후, 경봉문손인 반산스님은 경봉선풍중진 불사회의 간사 소임을 맡았기에 경봉 자료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불교TV의 담당 PD로부터 그 다큐멘터리 작업에 활용된 스님, 재가자들의 인터뷰 원고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후, 채록된 인터뷰 원고를 확보한 반산(양산 원각사)은 그를 통도사 사보지인 『보궁』에 1년여 동안 주제별로 나누어서 연재하였다. 그러나 『보궁』지에서의 연재는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 2016~2017년 경봉의 자료 일체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70) 필자가 담당한 것은 책의 99%인 대담 원고, 부록의 관응의 연보와 연구 및 참고자료 등이었다.

71) 그 책 20면의 일러두기에는 "여기에 실린 글은 동국대 김광식교수가 관응큰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전국의 증언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것"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책의 배포 날에 문도회는 필자에게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 문장에 "「황악일지록」 출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패를 드린다고 나온다.

이 경봉의 문헌 자료를 촬영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촬영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봉 문헌자료는[72] 대부분 촬영, 보관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은 경봉자료 중에서 일제하 종무총장을 역임한 이종욱(월정사)이 경봉에게 보낸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였다.[73]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반산스님과 인연을 갖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17년 12월 경(?) 필자는 반산스님으로부터 경봉책 출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그 요지는 불교TV에서 행한 인터뷰 당시의 원고를 갖고 경봉문도회에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자문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에 흔쾌히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세한 문제는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였다. 이런 전제에서 2018년 1월 초, 반산스님의 거주 사찰인 원각사에서 1박을 하면서 책 출간 제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그때 필자는 기존 원고만 갖고 출간치 말고, 인터뷰에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책의 기획, 편집에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반산은 경봉문도회에 가서, 「경봉 구술책 발간」 사업을 보고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2018년 3월 경부터 경봉 구술사 책 사업은 본격화 되었다. 사업의 추진 책임자는 경봉문도회 회장인 법산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동국학원 이사)이었고, 추진 간사는 반산스님이었다. 필자는 그 책의 추가 인터뷰를 담당하여 원고를 만들고, 기존 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담당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초반(6월)에서 돌출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업의 간사인 반산은 인터뷰 원고를 선별하여 그를 조계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월 2회로 연재하려는 기획을 수립하였다. 경봉의 선풍

---

72) 필자는 2015년 10월 10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경봉자료에 대한 의의, 성격 등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였다. 『불교신문』 2015.10.14, 「'근현대 불교 자료와 경봉콜렉션'」.

73) 『불교신문』 2016.10.19, 「조계사 대웅전 건립 과정 담긴 편지글 확인돼 ; 동국대 ABC사업단, 극락암 소장 경봉스님-이종욱스님 편지 공개」.

을 널리 알리려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반산스님과 필자는『불교신문』사장인 초격스님을 만나, 그 기획을 상의도 하였다. 그리고 그 실무자인『불교신문』논설위원인 박부영도 만나 대강의 틀을[74] 정하였다. 그래서 박부영 기자가 통도사까지 와서 협약까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연재 기획은 이행되지 못하였다.[75] 이런 와중에 반산스님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필자가 전적으로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법산스님과 함께 이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 원고를 열람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윤문 · 윤색을 하였다. 그래서 선택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012년 당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양이 부족하고, 적절치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스님 : 고산, 석정, 도문, 대원, 우룡, 혜인, 혜거, 혜국, 동주, 무여, 무비, 성파, 태응, 정우, 현문, 원명, 명정, 원산, 지연, 종범, 지안, 범하, 활성, 수안, 반산, 명성(니)

재가자 : 강수길, 백련성

위와 같이 기존 인터뷰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대상자는 28명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채록하기 위해 법산스님과 협의를 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상자들을 인터뷰를 하였다.[76] 그들은 경봉을

---

74) 연재 대상의 인물, 연재물의 원고량, 사진 등이었다.

75) 그 초점은 문도회 회장인 법산스님의 판단으로는 그 연재의 비용(2400만원)이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재 시점이 종단사태(총무원장 자격 시비, 대중 시위 등)로 인한 홍보 효과의 미흡도 거론했다. 법산은 그 비용으로 경봉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연재는 책 출간 후에 할 수도 있고,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6) 간혹, 인터뷰를 사양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석지현(번역가), 법선스님(통도사 옥련암),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도영스님(완주 송광사), 연관스님(봉암사), 무문스님(용주사), 보선스님(대흥사), 최병문(전『불교신문』부산지사장), 이진두(전『부산일보』논설위원), 이용부(전 문광부 종무관), 안석태(전 부산고등법원장) 등이다.

몇차례 만났던 대상자들로서 다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대상자는 2018년 12월 현재, 다음과 같다.

스 님 : 인환, 설정, 월탄, 월파, 원두, 법산, 혜남, 눌암, 정휴, 재원
시명, 법기, 자광(니), 능엄, 적명, 일진, 성타

재가자 : 김선근, 홍사성, 이상번, 이영채, 박익민, 황경환, 정병조, 강명철

즉 추가 인터뷰 대상자는 25명이었다. 이들의 인터뷰 원고에는 경봉의 가르침, 일화, 정체성,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채록된 인터뷰 내용과 기존의 경봉의 자료는 경봉의 연구, 책 서술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책의 출간은 2019년 6월 말경 마치고 경봉의 기일 다례재에 출간 기념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2. 기타 : 춘성, 동헌

필자의 구술사 작업에서 간과치 않아야 할 대상자는 춘성과 동헌이다. 춘성은 만해 한용운의 상좌이다. 필자는 한용운을 연구하는 연고로 춘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춘성은 한용운의 상좌 3명중에서 남한에 있었던 유일한 스님이었다. 동헌은 백용성의 법제자로 백용성 시봉을 하였고, 유훈을 계승하고 실천한 고승이다.

한편 필자는 2003년부터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으로 소임을 볼 때에 만난 효림스님으로부터 춘성에 대한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2006년 무렵에 받았다. 그 당시 효림은 춘성의 연고 사찰인 봉국사(성남) 주지이면서 만해마을 사무총장 소임을 보고 있어서, 필자와는 접촉이 많았다.[77] 그래서 필자는 만해 연구의 일환으로 춘성에 대한 일대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춘성에 대한 비사, 일화 등 흥미진진하고 참다운 고

77) 현재는 세종시 경원사에 주석하고 있다.

승이 갖고 있는 성격도 적지 않다고 보고, 춘성과 인연이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구술 증언기록은 일대기의 책에 수록하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수립한 필자는 춘성과 연고가 있는 대상자를 만났거니와, 그들은 다음과 같다.

스님 : 혜성, 우송, 혜광, 수명, 대선, 수경, 명진, 효림, 진관, 연호

재가자 : 목정배, 법계심, 평등행, 고영희, 보현심, 이맹임, 이행자, 황석연[78]

이렇듯이 스님 10명, 재가자 8명 등 총 18명을 2007~9년에 만났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고 나서, 증언을 들은 내용은 기존 구술사 인터뷰 증언기록과 달리 르포 기사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책자에서는 면담 일자를 도입부에 기록치 않았다. 다만 기사 내용에 삽입을 하였다.

하여간에 18명을 인터뷰 하고, 그를 정리하여 『춘성 -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이라는 책의 「내가 만난, 춘성」에 포함시켰다.[79] 그 책은 춘성일대기, 내가 만난 춘성, 일화로 만나는 춘성 등 3부로 구성되어 이었다. 출판에 들어가기 이전 필자는 원고를 작성하여, 원고 일체를 문도회에 제출하였다. 문도회에서는 이 원고를 총무를 보고 있는 수명스님에게 전달하여 감수를 보게 하였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80] 이 원고는 필자에게 되돌아 왔다. 그 무렵 필자는 불교언론의 대가인 홍사성에게 책의 구성 및 표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출판사는 많은 곡절을 거친 이후에 '새싹'에서 하기로 정하였다. 새싹은 춘성의 비석이 있고, 춘성 문도회의

---

78) 황석연은 초간 출판 직후, 1개월 후인 2009년 5월 경 면담하였다. 그래서 그의 인터뷰 내용은 수정판(2014년)에 반영되었다. 황석연은 사학자인 황의돈의 아들이다.

79) 거기에는 필자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르포 기사에 포함시킨 대상자가 있었다. 그들은 견진, 무비, 정일, 연호, 박경훈, 고은 등 5명이었다. 기존에 춘성과의 인연을 개진한 자료가 다수 있어, 필자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80) 문도회에서는 그 원고에 대한 감수를 오현스님(신흥사 조실)에게 부탁하였다. 이는 그 무렵 춘성의 비석을 백담사 입구에 추가로 세웠던 사정과 맞물려 있었다.

본부격인 사찰인 봉국사(성남)에서 '응급'으로 만든 출판사이었다.[81] 당시 봉국사 주지는 효림스님이었다.

이런 배경,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책은 2009년 2월 25일에 출간되었다.[82] 불교계 내외의 수많은 보도기사[83] 때문인지, 책의 내용이 충실하고 흥미로워서인지 책은 초판 인쇄 후 3개월 만에 4쇄를 찍는 등 종교분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간 직후 문도회에서 이견(배포 중지)을 피력하였던 비사도 있었다.[84] 그래서 그런지 책에 대한 문도회의 반응은 일반 독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뜨겁지 않았다. 몇 년 후 이 책의 출판사는 '도서출판 중도'로 전환되었고,[85] 2014년에는 수정판을 찍어[86]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

81) 그러나 책의 편집, 제작, 보급은 '바보새' 출판사에서 하였다.

82) 법보시판은 없었고, 보급판(상업)을 배포하였다.

83) 『조선일보』(2009.3.11) 「"갈 때도 無! 올 때도 無! 항상 無 하세요" 만해의 제자 춘성 스님 일대기 정리한 평전 나와」. 『문화일보』(2009.3.9) 「걸출하고 막힘없던 춘성스님, 신라때 태어났다면 딱 원효 ; 기행, 일화 등 담은 ... 무애도인 출간」. 『한겨레』(2009.3.17) 「무애선승 춘성 '거침없는 무소유'」. 『불교신문(2009.3.11) 「대자유인 춘성스님, 역사가 되다' 김광식 씨,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 '춘성' 출간」.

84) 춘성의 맞상좌인 봉국사 회주이었던 혜성스님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였던 혜성스님의 상좌 스님이 필자를 찾아와서, 출간된 『춘성』을 전부 회수하라는 요청이었다. 혜성스님의 그 요청은 춘성스님은 살아 생전에 당신에게 절대로 책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유언을 재인식 한 것에서 나왔다. 즉 당신은 춘성의 유언을 일시 착각을 해서 인터뷰에 응하였고, 책까지 나왔지만 춘성스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책을 회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작업 진행이 있었기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회수하려면 그에 걸맞는 손해배상(제작비, 필자의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부담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문도회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필자와 출판사는 시중에 배포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돌출 사태가 나온 것은 필자와 문도회가 책 출간, 구술 인터뷰에 따른 제반 문제를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문도 스님들로부터 인터뷰에 응해준 배려는 받았지만 일체의 지원비, 격려비는 받은 바가 없었다.

85) 초간본 출판의 제작, 보급을 맡은 출판사인 바보새의 대표가 별세하면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출간을 주관한 효림스님이 봉국사 주지를 사임하고 다른 사찰(세종시, 경원사)로 옮겨갔던 사정도 있었다.

86) 『법보신문』 2015.1.16, 「선·교 아우른 무애도인 춘성 스님을 만나다 '춘성' /김광식

한편 동헌에 대한 구술사 작업은 기획은 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동헌은 백용성의 제자이었는데, 그는 백용성 자료를 잘 보관하여 후대에 전승시킨 주역이었다. 때문에 백용성 연구를 하였던 필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백용성의 생애, 사상, 업적,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동헌에 대한 구술 인터뷰 추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백용성 입적 시점인 1940년으로부터 30~40년이 지난 시점인 1970~80년대에는 백용성을 만났던 대상자들이 생존하였기에 그때에 하였으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각사상연구원이 출범하였던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시점은 여러 측면에서 구술사 작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백용성의 弟子群을 통한 2, 3차적인 증언을 채록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구술사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던 2001~2017년에는 백용성의 문중, 문도의 고승을 선택하여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동산, 자운에 대한 구술사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

2009년 9월 22일, 화엄사에서는 동헌당 태현스님 열반 26주기를 맞아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87] 그 행사장에는 조계종단 큰 스님과 동헌문도 스님들이 많이 왕림을 하였다. 필자도 그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 행사가 있기 15일 전에 필자는 당시 대각사상연구원장인 보광스님(현, 동국대 총장)으로부터 동헌스님에 대한 구술사 작업의 개요를 작성하여 그 행사 날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기획서, 「동헌대종사 문집 기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행사 날 아침에 화엄사 입구 호텔 커피숍에서 보광스님, 도업스님에게 그를 설명하였다.[88] 그 기획서는 취지, 특성, 추진기간, 추진방법, 소요

지음/중도」, 『금강신문』 2014.12.16, 「"만해제자 춘성 스님 이야기" : 2009년 발행 <춘성> 재출간」.

87) 『불교신문』 2009.9.29., 「화엄사, 동헌스님 사리탑·비 제막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비문 작성」.

88) 그때 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화엄사에 왔던 용성문중의 스님인 원두스님에게도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예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때, 인터뷰 대상자(40여명)도 상의, 조율하였다. 상의한 결과 동헌 구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 필자는 동헌문도회의 총무 스님인 도실스님(부산 기장, 광명사)과 실무적인 연락을 갖고 제반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도실스님으로부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문도회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 백용성의 시봉, 자료 보관, 유훈 전달 등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대상이었던 동헌에 대한 구술사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동헌의 상좌 스님과 인연 불자들을 통하여 백용성에 대한 여러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추정하건대 그 증언은 2차, 3차 자료로서 변용 굴절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역사적 진실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었다.

Ⅲ. 결어 : 불교 구술사의 성찰과 전망

필자는 지난 20여년간 불교 구술사 작업을 개척하고, 그 현장에서 분투하였다. 이 같은 고투는 이런 작업이 불교 근현대 불교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그 작업에는 관련 문중, 문도스님들과의 긴밀한 협력, 상생이라는 구도가 있었다. 이제 지난 작업의 개요에 대한 정리를 마치면서 추후 이 방면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 구술사 작업은 계속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의 단체, 문중 및 문도, 학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다양성, 심화에 의한 작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교 구술사 성과에 대한 분석, 검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껏 행하여진 작업의 학문적인 비평, 분석, 비판이라는 객관적, 성찰적인

평가가 요청된다.

셋째, 불교 구술사 작업에 보편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이론, 성찰이라는 논리를 접목해야 한다. 즉 불교계 외부에 있는 구술사 분야의 학회, 연구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론, 문제점의 해소 방법 등을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구술사 관련의 이론서, 개설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술사를 실행하는 후속세대 양성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 방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는 극히 소수의 인물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후속 세대를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불교계 외부에서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지방학 등의 방면에서 신진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불교 구술사연구소, 학회, 포럼 등이 추진되는 것을 유의해서 불교계에 접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필자가 유의한 불교 구술사의 현황, 문제점, 모순 해소 방법, 전망 등을 피력하였다. 이런 지적이 불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술 인터뷰의 실무, 학술적 연구, 대안적 성찰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김광식, 「근현대 불교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2013.
_____, 「근현대불교사 연구 50년의 성과와 전망」, 『불교평론』 61, 2015.
_____, 『우리 시대의 큰스님』, 인북스, 2015.
_____,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 : 근현대 불교의 공백을 메우자」, 『불교평론』 15, 2003.
_____, 『아! 청담』, 화남, 2004,
_____,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2006.
_____,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7.
_____,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_____, 『춘성』, 새싹, 2009.
_____,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_____, 『오대산의 버팀목 - 만화 희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월정사, 2011.
_____, 『청백가풍의 표상 - 벽안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벽안문도회, 2012.
_____, 『보문선사 - 신화속으로 사라진 선승』, 민족사, 2012.
_____, 『방산굴의 무영수 - 탄허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 증언집』(상, 하), 민족사, 2013.
_____,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_____, 『관응 대종사 黃岳一旨錄』, 관응문도회, 2018.
이경순, 「근현대 불교 구술사 성과의 현황과 과제」,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8.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송암 지원, 『광덕스님 시봉일기』(전10권), 도피안사, 1999~2008.
송암 지원, 『광덕스님 시봉일기 - 머리책』, 도피안사, 2008.
원택,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김영사, 2001.
인 환, 『나의 발심수행장』(2권), 도서출판 문현, 2017.

* Abstract

Studies of Modern Zen Masters and Buddhist Oral History

Kim Gwang-sik*

This review summari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modern of high priest and oral interview. This article is not an academic treatise, but rather an article written by a publisher who has planned, interviewed, recorded, and made a manuscript in this field. I hope that this will be useful for interviewing, recording, editing, and publishing in the future.

On this premise, the author noted that: First, I tried to summarize the related content. It came from what I hope will be helpful to researchers in the future. Second, we focused on the recordability in order to promote oral research. Academic theorem, research, and reflection on oral history in the Buddhist world are insignificant. Therefore, we considered the nature of data to be active in this field research. Third,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ral interview work in the study of the high priest.

I hope that this review will be a reference to the Buddhist oral history, the study of the high priest, and the extension of the modern and modern Buddhist sphere.

---

* Specially Designat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Key words : Buddhist Oral History, Zen master, Testimony, Great Buddhist Monk

논문투고일: 2018.10.15. 심사완료일: 2018.12.15. 게재확정일: 2017.12.17.